

시민이 만드는 인문학습지도

유투공

내맘속 오페라

기획 언제든학교 기획단 정경민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Suwon Global Lifelong Learning Center

유투공은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 강의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활동입니다.

강사없이, 원하는 어떤 주제든, 언제 어디서나 열 수 있기에
유투공은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찾아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안전한 대화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한 '나'로 '너'를 만나고, '우리'가 됩니다.

가을엔 오페라

오페라 좋아하세요? 오페라를 즐지 않고 끝까지 보신 적 있나요?
오페라는 뮤지컬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페라를 보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할까요?
경험해 본 적 없어서 더 모르는 오페라를 함께 감상하며 오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오페라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아요.



시작하기 전에

나와 오페라와의 거리를 가늠해봅시다.

오페라를
관람한 경험이 있나요?

알고 있는
오페라의 제목을 써 봅시다.

오페라는
나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

작곡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원작 : 보마르세 <피가로의 결혼>

대본 : 로렌초 다폰테

초연 : 1786년 5월 오스트리아 빈 부르크 극장

등장인물 : 피가로, 수잔나, 백작, 백작부인, 바르톨로, 마르첼리나, 케루비노

줄거리 :

백작의 집에서 일하는 피가로는 그 집의 하녀로 일하는 수잔나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백작이 약혼녀에게 눈독을 들여 초야권을 부활시키려는 것을 알고 있는 수잔나, 백작부인과 함께 작전을 세워 백작의 계획을 저지시키고 무사히 결혼에 성공한다.



피가로의 결혼 키워드

프랑스
혁명

편지 2중창

복잡한
인물관계도

로지나의
결혼



피가로의 결혼

함께 본 영상

QR 코드를 스캔하여 오페라를 감상해보세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소개영상

[10분오페라 #7]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온라인음악수업 #오페라해설 #피가로의결혼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2021 부산오페라 WEEK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2021.10. 17.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Scene 1 (40:02) 1막, 수잔나의 방 : 케루비노와 백작의 숨바꼭질

Scene 2 (2:29:21) 3막, 백작부인의 방 : 백작에게 보낼 편지를 쓰는 수잔나와 백작부인

Scene 3 (3:12:26) 4막, 정원 : 수잔나와 백작부인의 계획대로 속아넘어가는 피가로와 백작



오페라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피가로의 결혼

가까이 보기

5막, 피가로의 독백

아뇨, 백작 나오리,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대단한 귀족 나오리이고 스스로 엄청 잘났다 생각하겠지요!

고고함, 재산, 지위, 직책, 이 모든 게 당신을 거만하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 대체 당신은 무얼 하였습니까?

응애 하고 태어난 거 외엔 딱히 한 게 없죠.

그걸 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랑 같지요!

피가로가 처음부터 ‘이발사’였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지식인이었으나 부당하게 여러 소송에 휘말리고 항상 당하기만 하니, 결국 적당히 귀족들 심부름이나 하면서 사는 게 속 편히 돈버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세비야의 이발사로 주저앉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습은 원작자 ‘보마르세’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기도 하다.

‘피가로의 결혼’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의 후속편으로, 대부분의 인물이 같다. 피가로의 결혼의 극작가인 ‘로렌초 다폰테’는 모차르트와 함께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를 작업해 ‘피가로의 결혼’과 함께 ‘다폰테 3부작’을 완성했다.



피가로의 결혼

가까이 보기

바지 역할: 여자 가수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경우

1. 여자 가수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경우

오페라 초창기에 거세한 남자 가수들이 맡았던 역할을 현대에 여자 가수들이 하는 경우이며 헨델 <줄리어스 시저>의 시저, 모차르트 <티토 황제의 자비> 세스토 장군 등이 있다.

2. 처음부터 다른 성의 가수가 역할을 하도록 작곡된 경우

이를 ‘트라베스티’라고한다. <피가로의 결혼>의 케루비노, 베르디 <가면무도회>의 오스카, 오펜바흐 <호프만 이야기>의 니클라우스, 요한 스트라우스 <박쥐>의 오를프스키 등이 있다. 보통 남자라기 보다는 소년에 가까운 배역들이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기량이 좋은 카운터 테너들이 이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가로의 결혼’은 1876년에 초연될 당시 5막을 삭제하고, 많은 부분을 수정한 뒤에 공연될 수 있었다고 해요. 수정을 해서라도 공연을 하고 싶기도 했겠지만, 작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내용이 고쳐지는 과정을 겪는 일은 기본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검열의 문제는 19세기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많은 예술 작품을 만나면서 자의와 타의로 검열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안녕한가요?

작곡 : 주세페 베르디

원작 :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 <동백꽃 아가씨>

초연 : 1853년 3월 6일 베니스 라 페니스 극장

등장인물 : 비올레타, 알프레도, 제르몽

줄거리 :

코르티잔 신분의 비올레타와 부르주아 청년 알프레도는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은 비올레타에게 떠나 줄 것을 종용하고 비올레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받아들인다. 이를 단단히 오해한 알프레도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 아픈 이별을 하고, 시간이 흘러 비올레타는 전부터 앓고 있던 폐병으로 죽어 가던 중, 오해를 풀고 달려온 연인의 품에서 숨을 거둔다.



라트라비아타 키워드

동백꽃
아가씨

코코샤넬

아침드라마

축배의 노래



2



라트라비아타

함께 본 영상

QR 코드를 스캔하여 오페라를 감상해보세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소개영상

[10분오페라 #2]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온라인음악수업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경남오페라단 베르디(G.Verdi)오페라 "라트라비아타"
Scene 1 (8:38) 1막 축제의 시작
Scene 2 (36:05) 2막 1장 내 아들이랑 헤어져
Scene 3 (1:12:55) 2막 2장 내가 쓴 돈 다 갚아줄게



오페라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코르티잔(courtesan)에 대하여

극 중 비올레타의 직업은 ‘코르티잔’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코코샤넬의 창립자 가브리엘 코코 샤넬을 두고 ‘이 시대의 마지막 코르티잔’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코르티잔은 19세기 파리의 상류사회 남성의 사교계 모임에 동반하며 그의 공인된 정부 역할을 하던 여성으로 기생이나 게이샤처럼 가무에 능해야 했고, 시사적 지식과 교양을 갖춰 상류사회 남성들의 대화 상대를 하던 여성들을 말한다.

동백꽃은 꽃이 피는 25일 중 20일을 하얀색으로 피었다가 마지막 5일 동안 빨간색으로 변한다. 극중 비올레타가 알프레도에게 건네 준 동백꽃은 빨간 색이었고, 곧 꽃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올레타의 운명 같기도 하고, 그들의 사랑에 대한 암시 같기도 하다. 라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는 베르디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실제로 베르디가 사랑하는 여인이 화류에 출신인 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의 위선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 오페라를 만들었다.



베르디

베르디는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를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탈리아 낭만파 오페라의 정점을 확립했다. 북이탈리아의 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베르디는 7살 때부터 음악 공부를 시작했지만 피아노 실력이 부족해 밀라노 음악원 진학에는 실패했다. 이를 계기로 작곡으로 진로를 바꾸었는데, 베르디 개인적으로는 안된 일이었지만, 인류는 대작곡가 베르디라는 유산을 얻게 된 셈이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에 대한 성찰과 고뇌가 가득하다. 이는 개인적인 상실의 아픔으로 얻은 삶에 대한 고찰이라 짐작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결혼으로 얻은 가족 모두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이러한 개인의 비극과 맞바꾼 것이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 말이겠지만, 베르디를 떨어뜨렸던 밀라노 음악원이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주세페 베르디 음악원’으로 바뀌게 된 것까지 그의 삶은 아이러니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2



라트라비아타

가까이 보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르디의 오페라 중 26편이 멜로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오페라를 감상하다보면 단순한 사랑이야기라기 보다는 ‘사극의 탈을 쓴 시사물’ 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트라비아타>의 경우도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사용했지만, 그 시대에 화류계 여성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에 대한 풍자가 숨어있거든요. 베르디는 오페라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작곡 : 조르주 비제

원작 : 프로스페르 메리메 <카르멘>

대본 : 루드빅 알레비. 앙리 메이악 (프랑스어)

등장인물 : 카르멘, 돈호세, 미카엘라, 에스카미오

줄거리 :

군인 호세는 집시 카르멘에게 빠져서 약혼녀도 군인의 명예도 버리고 사랑을 쫓아간다. 하지만 구속을 견디지 못한 카르멘은 이내 마음이 흔들려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고, 배신감을 못이긴 호세는 그녀를 찾아가 죽인다.



카르멘 키워드

아는 노래
많은 오페라

메조소프라노

스페인
세비아

팜파탈



카르멘

함께 본 영상

QR 코드를 스캔하여 오페라를 감상해보세요.



오페라 '카르멘' 소개영상

[10분오페라 #3] 비제의 '카르멘'

#온라인음악수업 #오페라해설 #카르멘



오페라 '카르멘'

Scene1 (처음부터 25:40)

1막: 서곡부터 돈호세를 유혹하는 장면까지 (하바네라)

Scene2 (1:01:37~1:22:00)

2막: 에스카미오 등장, 돈 호세 유혹(feat.캐스터네츠)

Scene3 (1:38:20~1:50:59)3막: 카르멘의 죽음을 예측하는 카드점

Scene4 (1:51:45~2:05:20) 3막: 돈호세와 에스카미오의 결투

Scene5 (2:11:35 2:32:41) 4막 전체



오페라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초연 당시 자유분방한 주인공과 비도덕적인 내용, 하층민의 삶이라는 주제 때문에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기도 했던 카르멘은 비제가 사망한 후 빈에서 공연돼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통적인 오페라 형식을 벗어나는 경쾌한 음악과 파격적인 내용’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바그너, 브람스, 생상스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음악가들 또한 카르멘을 격찬했습니다. 빈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카르멘은 전 세계 각 도시에서 상연되며 세계적인 오페라가 됩니다.

<카르멘>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연으로 돌아간 형태의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고귀한 여성의 사랑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홀려 그들을 망가뜨리는 여인인 카르멘은 사랑이 치명적인 운명임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냉소적이고 천진하고 잔혹합니다. 이 사랑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죽음에 이르는 증오와 전쟁이 있습니다.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사랑의 본질인 비극적 위트가 이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된 작품은 드뭅니다. (출처 : 오페라 인문학 - 박경준)



조르주 비제

프랑스 파리에서 성악 교사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최연소로 파리음악원에 진학하고 각종 콩쿠르에 입상하는 등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파리에서 작곡가로 생계를 꾸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당시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오페라를 공부해 <진주조개잡이>, <카르멘> 과 같은 작품을 남겼으나,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잇따른 실패와 악운으로 인후염과 신경쇠약이 도져서 3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3

카르멘 가까이 보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페라는 대사가 없이 노래로 채워지는 공연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오페라에는 유명한 ‘아리아’가 있기 마련이죠. 오페라의 내용을 몰라도 들으면 아는 ‘아리아’가 있기도 할 정도예요. 서사가 있는 음악극에서 여러분은 이야기가 더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음악이 더 중요하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무대 장치나 효과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오페라를 보면서 더 주의를 기울여 관람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4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작곡 : 가에타노 도니제티

원작 : 외젠 스크리브의 대본 (프랑스어)

대본 : 펠리체 로마니 (이탈리아어)

초연 : 1832년 밀라노 카노비아나 극장

등장인물 : 네모리노, 아디나, 벨코레, 돌카마라

줄거리 :

네모리노는 동네의 인기인 아디나를 오매불망 짝사랑하는 중이다. 어느 날 마을에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그 군의 장교인 벨코레가 적극적으로 아디나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한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네모리노는 약장수 돌카마라에게 가서 사랑의 묘약을 구입하게 된다. 사실 그 묘약은 포도주를 속여서 판 가짜였지만 이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군 입대까지 결심한 네모리노의 사랑에 아디나는 마음이 열리게 된다.



사랑의 묘약 키워드

내 얼굴이 묘약
내 눈빛이 묘약

가족오페라

네모리노의
찌질함



4

사랑의 묘약

함께 본 영상

QR 코드를 스캔하여 오페라를 감상해보세요.



오페라 '사랑의 묘약' 소개영상

[10분 오페라 #16]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온라인음악수업 #도니제티 #사랑의묘약



오페라 '사랑의 묘약'

서울오페라페스티벌2019 가족오페라 '사랑의 묘약' (19.10.04)
Scene1 (7:53~43:13) 35분
Scene2 (1:03:41~1:32:13) - 2막 시작 (29분)



오페라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크리스탄과 이졸데

‘트리스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슬픈 시련’을 의미한다. 사랑은 슬픈 시련이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누구도 사랑의 열정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트리스탄은 마르케 왕의 사자로, 아일랜드 공주 이졸데에게 청혼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시녀의 실수로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사랑의 묘약을 마시고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에 빠진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죽음으로써 사랑의 영원성을 보여준다.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게르만의 영웅 지크프리트는 바위산에 갇힌 브른힐데를 구해준다. 그가 브른힐데에게 키스하자 그녀가 마법에서 깨어난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약속한다. 지크프리트는 사랑의 징표로 반지를 주고 브른힐데는 자신의 애마 그라네를 선물한다. 그러나 교활한 하겐의 음모로 지크프리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영식에 나온 마법의 술을 마시고 브른힐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다.

그는 브른힐데를 잊고 누이동생 구트루네를 아내로 맞이한다. 지크프리트와 브른힐데가 다시 만났을 때, 브른힐데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크프리트를 저주한다. 배신의 분노로 가득 찬 그녀는 지크프리트의 적에게 그의 약점을 알려주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지크프리트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옛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약초 즙을 먹는다.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난 지크프리트는 죽어가며 “브른힐데, 신성한 신부여!” 라고 외친다. 이 모든 것이 하겐의 음모라는 것을 알게 된 브른힐데는 불 속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는다.



사랑의 묘약

가까이 보기

가에타노 도니제티

도니제티는 벨리니, 로시니와 함께 19세기 전반의 벨칸토 오페라를 주도한 작곡가다. 도니제티는 군인 신분으로 작곡가 데뷔를 한 이력의 소유자다. 곡을 빨리 쓰는 작곡가였던 그는 다작을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도 한몫에 받는 성공한 작곡가가 되었다. 하지만 사생활은 일처럼 술술 풀리지 않았으니,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 상심에 빠져 방탕하게 살다가 매독에 걸렸고, 그는 결국 과로에 매독균에 의한 뇌신경 손상으로 정신착란까지 와서 말년에는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도니제티는 로시니의 후계자 후보로서 벨리니와 비교되며 벨리니에게 항상 판정패 당했지만, 평생 평론가들보다 대중에게 더 사랑받는 작곡가였다. 대표작으로는 <사랑의 묘약>, <연대의 딸>, <돈 파스칼레>,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등이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페라 감상과 오페라 비평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은 지금 오페라를 감상하고 있나요? 평가하고 있나요? 오페라를 어떻게 감상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무엇을 생각하면 오페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줄지 않고 마음에 남길 수 있을까요?

작곡 : 자코모 푸치니

원작 : 앙리 뒤르제 <보헤미안의 생활>

대본 : 루이지 일리카, 주세페 자코사

초연 : 1896년 2월 1일 토리노 왕립오페라극장

등장인물 : 로돌포, 마르첼로, 콜리네, 쇼나르, 미미, 무제타

줄거리 :

크리스마스이브, 가난한 예술가 친구 로돌포, 마르첼로, 콜리네, 쇼나르는 자린 고비 집주인을 상대로 재치를 발휘해서 집세를 해결하고,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즐겁게 보내기로 결심하고 거리로 나선다. 마무리할 일 때문에 뒤에 남은 로돌포는 불을 빌리러 온 이웃 미미와 사랑에 빠지고, 둘까지 합세한 ‘뫼무스’ 카페에서 마르첼로의 옛 연인 무제타가 화해하면서 친구들은 모두 화기애애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하지만 마르첼로와 무제타는 성격 차이로, 로돌포와 미미는 미미의 병을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 시간이 흘러, 로돌포 곁에서 죽음을 맞기를 희망하는 미미를 무제타가 친구들이 있는 다락으로 데리고 온다.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서 미미는 숨을 거둔다.



라보엠 키워드

렌트

불 끄는 건
국룰

금사빠들이
만나면

5

라보엠

함께 본 영상

QR 코드를 스캔하여 오페라를 감상해보세요.



오페라 '라보엠' 소개영상

[10분오페라 #12] 푸치니의 '라 보엠'
#라보엠 #온라인음악수업 #오페라해설



오페라 '라보엠'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G.Puccini - La Boheme

일시 :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Scene1 1막 (16:05) - 20분

Scene2 2막 전체 (34:30) - 20분

Scene3 3막 (1:03:22) - 15분

Scene4 4막 (1:21:58) - 23분



오페라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라보엠

가까이 보기

<라보엠>을 원작으로 현대화한 뮤지컬은 <렌트Rent>다. <렌트>도 가난한 예술가들의 자유와 사랑을 노래한다. 그러나 <라보엠>이 1830년대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젊은 예술가들과 당시 유행한 결핵의 이야기라면, <렌트>는 1990년대 미국 뉴욕 이스트 빌리지의 신세대 예술가들과 에이즈 이야기다. <라보엠>은 각 배역의 아리아 사이마다 음정이 있는 레치타티보로 극이 전개되는데, <렌트>에서는 음정 없이 대사를 통해 극이 빠르게 전개된다.

조너선 라슨은 오페라 <라보엠>의 등장인물이 자신과 같은 가난한 예술가로 보헤미안적인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주목했다. 결핵에 걸려 죽어가는 <라보엠>의 미미를 바라보며 <렌트> 속 에이즈로 고통받는 그의 친구들을 구상한 것이다. <라보엠>이 끌고 가는 주요 전개가 가난이라면 <렌트>는 당시 사회 문제를 꼬집어내고 있다. 조너선 라슨의 <렌트>는 <라보엠>의 아류작이 아닌 현대적 시각의 뮤지컬 <라보엠>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미미는 길거리 댄서이자 로저의 애인으로, 원작 그대로 ‘미미’ 이름을 사용한다. 오페라와 뮤지컬에서의 미미는 남자주인공 집에 불을 빌리러 먼저 찾아오지만 미미는 <렌트>에서 에이즈를 앓고 있다. 또 오페라에서 수줍음이 많고 수를 놓으며 살아가는 가녀린 여성이지만, 뮤지컬에서는 관능적이고 섹시한 춤을 추는 길거리 댄서다. 미미의 사랑은 오페라나 뮤지컬 모두 절절하고 진실하다.

(출처 : 오페라 인문학 - 박경준)

자코모 푸치니

푸치니는 음악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가업을 잇기 위해 음악에 입문했다. 어릴 적에는 특출한 음악적 재능을 보이지 않았으나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본 이후에 오페라 작곡가가 될 결심을 하고 밀라노 음악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작곡을 공부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장르를 만나게 되었고 음악 출판업자인 리코르디의 눈에 띄어 베르디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주목받으며 성장했다. <마농레스코> 성공 이후 명실상부한 오페라 작곡가로 자리매김하면서 <라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서부의 아가씨>, <투란도트> 등 수많은 걸작들을 남겼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페라의 전성시대는 푸치니가 사망하던 시기(1924년)를 기점으로 막을 내리게 되요. 그도 그럴 것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밌는 볼거리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멈추게 되면서 오페라 속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 시대의 여성성에 대한 시각도 멈춘 느낌이 듭니다. 오페라 <라보엠>에서 미미는 결핵으로 죽지만 뮤지컬 <렌트>에서 미미는 죽지 않죠. 많은 오페라에서 여주인공을 그리는 방식의 유사성을 보여요. 여러분이 오페라의 대본을 쓴다면, 어떤 여성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나요?

02

내맘속 오페라

기획 정경민(언제든학교 기획단)
편집 박찬선(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평생교육팀)
발행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우만동)
031-248-9700 | <http://learning.suwon.go.kr>